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The Moderated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부 교수 김혜원*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Dept. of Youth Culture and Counseling,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Hye-W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Professor : Cho, Song-Yon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1,099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nam province.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F* test, the Scheffé test for a post hoc test,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by SPSS program(18.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styl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by school level, an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in school life satisfaction by gender. Second, the more depressed they were, the more they had suicidal ideation by school level and gender. Also, the more they communicated openly with their parents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ir school life, the less depressed they were and the lower degree of suicidal ideation they had.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bot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우울(depression),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학교생활만족도(school life satisfaction)

* 주 저 자 : 김혜원 (E-mail : hyewkim@hoseo.edu)

** 교신저자 : 조성연 (E-mail : sycho@hoseo.edu)

I. 서론

자살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최준영, 2008)고 표현될 만큼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2,174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중 5%를 차지했고, 이러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된다(최준영, 2008). 전체 자살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심각해 2008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중1~고3)의 19.2%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실제로 4.8%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2008년 한 해 동안 1세에서 24세 집단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통계청, 2010),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자료에서도 2009년에 자살한 초·중·고생은 모두 202명으로 2005년의 135명에 비해 급증하였다(수원시민신문, 2010. 10. 10). 특히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1980년대 이후 감소추세에 있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박은옥, 2008).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중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기 파괴적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생각이다(우체영·박아청·정현희, 2010).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이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에 선행하므로 자살시도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예언지표로 간주된다(김현순, 2008; 허정은, 2004; Beck et al., 1993). 실제로 Pfeffer 등(1991)은 자살생각률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시도율이 더 높았고, Reinherz는 자살생각을 했던 집단은 하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를 12배 더 많이 시도하였으며(권은희, 2009 재인용),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심하고 빈번하게 자살생각을 하였다(육성필, 2003).

청소년 자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과 연령이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살생각과 성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들(김희연, 2006; 문경숙, 2006; 박재산·문재우, 2010; 박병금, 2006; 박은옥, 2008; 하현희, 2001)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살시도와 자살완료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Byard et al., 2000; Hallfors et al., 2004)이 있고,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들(김현주, 2008; 전영주, 2001)도 있다. 이처럼 성에 따라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대한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연구들이 초점을 두는

자살관련 행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자살완성률은 남자청소년이 더 높지만 자살시도율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2~3배 정도 더 높다는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우체영 등, 2010).

한편, 연령이나 학교급도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마다 발달과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업수행에 대한 기대와 요구되는 책임에 차이가 있어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이 일어날 수 있지만 특정 연령대가 자살유희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는 1~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5~24세는 자살이 1위이지만 1~14세는 질병(암)에 의한 사망이 1위라는 통계청(2010)의 청소년 사망원인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2009년에 자살한 초·중·고생 중 고등학생(69%)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많았다(수원시민신문, 2010. 10. 10). 그리하여 연령이나 학교급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더 많아, 높은 학년의 청소년이 낮은 학년의 청소년에 비해(김현실, 2002; 오현아 등, 2008),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조성진 등, 2001)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낮은 연령이나 학교급에서 더 높은 자살위험성이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시도가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우체영 등, 2010 재인용). 그러므로 자살생각에 대한 성, 연령, 학교급의 영향은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Alloway, 2005; Groholt, 2000; Lewinsohn et al., 2001; Weissman et al., 1999)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우울을 지목하여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도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Angela(2007)는 우울이 자살위험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많은 국내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서민정, 2005; 우체영 등, 2010; 전영주, 2001), 우울성향이 강할수록 자살충동이 높아지며(박병금, 2006; 이재상, 2004; 홍영수, 2004),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었다(박혜정, 2009; 이은숙, 2002).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도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과 관련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 미국의 경우에 15세 여자청소년의 49%와 남자청소년의 34%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여 성차를 보였다(Scheidt et al., 2000). 우리나라에서도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남자 34.0%, 여자 44.3%로 성차가 있었고(보건복지가족부, 2009),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의 조사결과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았으며(경인일보, 2010. 5.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자료에서도 10대 여성의 진료건수 증가율이 15.3%로 모든 연령별·성별 분표 중 가장 높았다

(세계일보, 2009. 11. 2). 한편, 연령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령이 높은 집단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엄태완 등, 200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현아 등(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2010)의 조사에서도 초·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았다(경인일보, 2010. 5. 6). 이처럼 우울에서의 비교적 분명한 성차와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학교급에 따라 다른 차이가 산출되었으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과 학교급에 따른 우울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지만, 우울한 모든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자살행동을 하는 모든 청소년이 우울한 것도 아니다(Ayyash-Abdo, 2002). 즉, 우울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계획을 하는 청소년이 20% 이상이라는 결과(이민창 등, 1992)를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있어 우울 증상만이 자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시기의 자살시도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김순규, 2008).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은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관련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정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그곳에서 경험하는 지지 정도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건이다(송성자, 1996). 청소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긍정적 자아개념, 가치관 등의 형성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이러한 발달과업을 가정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안, 열등감, 우울, 긴장들을 유발하거나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문제 등의 문제행동과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구현영 등, 2006; 문은식 2005). 우체영 등(2010)은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우울한 상황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데,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들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에 비해 가족과의 결속력이나 적응력이 낮고, 자살률도 더 높다(우선유, 1999; 하상훈, 2000; 하현희, 2001; Bridge et al., 2006; Grob et al., 1983; Marcenko et al., 1999; Range, 1993). 또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이권오, 2004), 초·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개방적이기보다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경향은 전문계고교생에게서 가장 심하다(김혜원 등, 2010).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 자살과 부모-자녀관계를 다루면서 자살의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 중 하나인 우울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도 청소년 자살과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우울이 어떤 매개적 혹은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김선아, 2009; 김현순, 2009; 박현숙·정선영, 2010; 우체영 등, 2010; 전영주, 2001; 최인재, 2010). 그러나 청소년 자살에 대해 우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박병금과 노필순(2007)은 우울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자살생각을 더 적게 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박영숙(2009)도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와의 갈등관계가 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도 증가하지만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청소년 자살과 우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 변인으로 청소년들의 학교만족도를 들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성인기의 사회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전조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열된 대학입시로 인해 학교의 기능이 학업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극심한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경애 등, 1993; 박혜정, 2009; 우선유, 1999; 우체영 등, 2010; 하상훈, 2000; 하현희, 2001; 한기석·정영조, 1992). 이와 함께 청소년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적응력이 높아지고 자살률도 더 낮아지며(김순규, 2008; 박현선, 1998; Crosnoe & Elder, 2004),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전문계고교생들이 일반계고교생들에 비해, 그리고 고학년이 저학년들에 비해 학교만족도가 더 낮았다(조성연 등, 2010).

이런 가운데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학교요인을 우울과의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 자살과 학교관련 요인의 관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김선아, 2009; 김현순, 2009; 박현숙·정선영, 2010; 우체영 등, 2010)를 살펴보기거나, 혹은 우울과 자살을 동일선상의 종속변인으로 보고 관련변인들을 탐색하는 경우(김재엽·이근영, 2010; 박재연, 2010)가 많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우울에 우선 초점을 맞춰 청소년 자살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학교관련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박병금과 노필순(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판단된 청소년들에게서 학교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영숙(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지만, 이들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살생각이 줄어들고 친구와의 갈등이 많으면 자살생각도 더 많아졌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전반이나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낮으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우울은 강력한 예언변인이고, 이에 대해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자살생각과 우울의 관련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우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이들 간에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울, 자살생각,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만족도 및 주변인들 간의 관계 모두에서 성과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성과 학교급에 따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향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우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중재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6개 시(천안, 아산, 공주, 계룡, 논산, 서산)와 7개 군(연기, 당진, 금산, 예산, 서천, 홍성, 태안)의 1,56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한 설문내용 중 한 문항이라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총 1,099명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 학교급은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더 많이 표집되었다. 지역은 인구분포 상 시지역의 인구가 많아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 대한 표집수가 더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수준은 201~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 501만원 이상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학교 성적은 중이 가장 많았고, 하와 상은 각각 12.2%와 12.7%로 비슷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모와 동거(79.9%)하고 있었고, 한부모 가족은 11.7%였으며,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6.2%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

청소년들이 부모와 갖는 의사소통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PACI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10문항)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의사소통방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90,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79이었다.

2) 학교생활만족도척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신국(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8개 영역(학교생활전반, 교우관계, 수업과 학습, 교사관계, 학급분위기, 학교규칙, 학교복지시설,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학교생활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40문항으로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99

구 분		빈도 (명)	%	구 분		빈도 (명)	%
성	남	553	50.3	지역	시	976	88.8
	여	546	49.7		군	123	11.2
학교급	중학교	421	38.3	학년	1	493	44.9
	일반계고교	344	31.3		2	325	29.6
	전문계고교	334	30.4		3	281	25.6
출생순위	첫째	448	41.0	학교성적	하	133	12.2
	둘째	440	40.2		중하	261	23.9
	셋째	100	9.1		중	302	27.7
	넷째 이상	33	3.0		중상	257	23.5
	외동	72	6.6		상	139	12.7
가정 월소득	200만원 이하	195	19.0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 함께	874	79.9
	201-300만원	296	28.9		아버지와 함께	51	4.7
	301-400만원	224	21.9		어머니와 함께	65	5.9
	401-500만원	128	12.5		부모와 비동거	68	6.2
	501만원 이상	181	17.7		기타	35	3.2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1문항), 교우관계(6문항), 수업과 학습(6문항)과 교사관계(5문항)에 대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86이고, 교우관계는 .73, 수업과 학습은 .83, 교사관계가 .82이었다.

3) 우울척도

청소년들의 우울정도는 Radloff의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경험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86이었다.

4) 자살생각 척도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정도는 Reynolds의 자살생각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신민섭(199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제작한 척도로서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96이었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학년, 지역, 출생순위, 가정의 월평균소득, 학교성적,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았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충청남도 시·군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송하여 담임선생님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 후 즉시 회수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각 척도와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t 검증과 F 검증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교급별, 성별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

1) 학교급별 차이

중학교,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의 학교급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중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일반계고교생들이 중학생이나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

<표 2> 학교급별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 N=1,099

		중학교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F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개방적	3.18 _a (.73)	3.37 _b (.64)	3.19 _a (.69)	8.32***
	역기능적	2.62 (.58)	2.63 (.56)	2.66 (.59)	.55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전반	3.34 _b (1.03)	3.38 _b (.94)	3.11 _a (.94)	7.46***
	교우관계	3.26 _a (.66)	3.41 _b (.58)	3.20 _a (.62)	9.69***
	수업과 학습	2.84 _b (.70)	2.88 _b (.65)	2.64 _a (.71)	12.01***
	교사관계	2.71 (.84)	2.62 (.76)	2.63 (.76)	1.57
	총 점	2.97 _b (.56)	3.01 _b (.50)	2.85 _a (.51)	8.61***
우울	1.85 (.49)	1.89 (.47)	1.93 (.49)	2.52	
자살생각	1.87 _b (.89)	1.71 _a (.76)	1.96 _b (.91)	7.57***	

주. a, b는 하위영역들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001

<표 3> 성별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 N=1,099

		남	여	t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개방적	3.21 (.68)	3.27(.71)	-1.41
	역기능적	2.65 (.58)	2.62(.58)	1.00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전반	3.33(1.03)	3.24(.93)	1.47
	교우관계	3.29(.63)	3.29(.63)	-.05
	수업과 학습	2.78(.70)	2.80(.69)	-.56
	교사관계	2.72(.80)	2.59(.77)	2.73**
	총 점	2.96(.54)	2.93(.52)	1.00
우울	1.89(.49)	1.89(.48)	-.23	
자살생각	1.78(.87)	1.91(.85)	-2.36*	

*p<.05, **p<.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평균적으로 전문계고교생이 중학생이나 일반계고교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둘째, 학교생활만족도 총점에서는 중학생이나 일반계고교생이 전문계고교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만족도 중 '학교생활전반'에서는 중학생이나 일반계고교생이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교우관계'는 일반계고교생이 중학생이나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수업과 학습'은 중학생이나 일반계고교생이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수업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셋째, 우울수준은 중학생이나 일반계고교생에 비해 전문계고교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중학생과 전문계고교생들이 일반계고교생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2) 성별 차이

성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둘째, 학교생활만족도 총점은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교사관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교사관계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우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같은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었다.

2. 학교급별, 성별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 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

1) 학교급별

학교급별로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 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별로 볼 때 첫째, 중학생의 경우에 자살생각은 우울 및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나, 학교생활만족도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들 및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우울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 총점 및 교사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둘째, 일반계고교생의 경우에 자살생각은 우울 및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나,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들과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우울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들과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전문계고교생의 경우에 자살생각은 우울 및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나,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 중 학교생활 전반에서만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2) 성별

성별로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남녀 모두 우울과 높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남녀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경우에는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자

<표 4> 학교급별로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N=1,099

		1	2	3	4	5	6	7	8
1. 개방적 의사소통	중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44**	-						
	일반계고	-.57**	-						
	전문계고	-.43**	-						
3. 학교생활전반 만족	중	.27**	-.10*	-					
	일반계고	.21**	-.12*	-					
	전문계고	.25**	-.11	-					
4. 교우관계 만족	중	.35**	-.11*	.46**	-				
	일반계고	.24**	-.16**	.47*	-				
	전문계고	.30**	-.01	.48**	-				
5. 수업과 학습 만족	중	.26**	-.05	.43**	.28**	-			
	일반계고	.27**	-.24**	.35**	.39**	-			
	전문계고	.23**	.01	.27**	.19**	-			
6. 교사관계 만족	중	.23**	-.05	.38**	.34**	.55**	-		
	일반계고	.21**	-.13*	.27**	.30**	.49**	-		
	전문계고	.20**	.08	.19**	.23**	.50**	-		
7. 만족도 총점	중	.37**	-.10	.62**	.70**	.79**	.81**	-	
	일반계고	.32**	-.23**	.54**	.72**	.82**	.77**	-	
	전문계고	.35**	.02	.50**	.64**	.78**	.77**	-	
8. 우울	중	-.13**	.30**	-.21**	-.14**	-.15**	-.06	-.16**	-
	일반계고	-.19**	.32**	-.28**	-.26**	-.27**	-.17**	-.31**	-
	전문계고	-.14**	.33**	-.17**	-.08	-.02	.08	-.03	-
9. 자살생각	중	-.25**	.33**	-.25**	-.18**	-.18**	-.12*	-.22**	.62**
	일반계고	-.26**	.40**	-.29**	-.28**	-.28**	-.05	-.28**	.62**
	전문계고	-.22**	.36**	-.25**	-.10	.05	.09	-.01	.50**

*p<.05, **p<.01

<표 5> 성별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N=1,099

		1	2	3	4	5	6	7	8
1. 개방적 의사소통	남	-							
	여	-							
2. 역기능적 의사소통	남	-.42***	-						
	여	-.52***	-						
3. 학교생활전반 만족	남	.22**	-.15**	-					
	여	.29	-.06	-					
4. 교우관계 만족	남	.31**	-.11**	.42**	-				
	여	.32**	-.07	.53**	-				
5. 수업과 학습 만족	남	.21**	-.08	.39**	.28**	-			
	여	.31***	-.10*	.35**	.30**	-			
6. 교사관계 만족	남	.22**	-.05	.31**	.29**	.54**	-		
	여	.21***	-.03	.27**	.29**	.48**	-		
7. 만족도 총점	남	.32**	-.12**	.56**	.67**	.81**	.79**	-	
	여	.38***	-.09*	.58**	.71**	.79**	.76**	-	
8. 우울	남	-.12**	.35**	-.19**	-.13**	-.14**	-.04	-.15**	-
	여	-.18**	.28**	-.26**	-.17**	-.16**	-.07	-.20**	-
9. 자살생각	남	-.19**	.35**	-.27**	-.19**	-.12**	.02	-.14**	.59**
	여	-.32**	.38**	-.27**	-.20**	-.16**	-.08	-.21**	.57**

*p<.05, **p<.01, ***p<.001

살생각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관정도는 남학생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자살생각과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녀 청소년의 우울도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3.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어떤 중재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후,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우울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변수를 만들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중재효과가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중재변인의 수준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으로 중재변인을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

단별로 자살생각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별 Durbin-Watson계수는 중학교 1.19, 일반계고교 1.69, 전문계고교 1.99이고, 남자청소년 1.84, 여자 청소년 1.83으로 나타나 Durbin-Watson계수가 모두 2에 근접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1) 학교급별

학교급별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에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8.5%였고, 부모와의 개방적,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가 약 3.9% 설명력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방식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 자살생각이 줄어 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전체 변인들이

<표 6> 학교급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N=1,099

	독립변인	B	SE B	β	R ² /ΔR ²
중학교	우울	1.683	.285	.930***	.385
	개방적 의사소통	.278	.172	.228	.027
	학교생활전반	-.082	.033	-.096*	.006
	역기능적 의사소통	.177	.065	.117**	.006
	우울×개방적 의사소통	-.224	.091	-.473*	.007
R ² = .43*** F = 64.68***					
일반계고교	우울	-.585	.377	-.363	.379
	역기능적 의사소통	-.415	.212	-.305	.044
	학교생활전반	-.105	.035	-.129**	.012
	교사관계	-.174	.159	-.172	.009
	수업과 학습	-.174	.057	-.147**	.009
	우울×역기능적 의사소통 우울×교사관계	.356 .172	.104 .078	.916*** .395*	.014 .006
R ² = .47*** F = 44.55***					
전문계고교	우울	.746	.090	.402***	.249
	역기능적 의사소통	.322	.073	.210***	.042
	학교생활전반	-.186	.046	-.192***	.023
	수업과 학습	.142	.060	.111*	.010
R ² = .32*** F = 40.83***					

주. 제시된 결과들은 각 집단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마지막 단계의 통계치임.

*p<.05, **p<.01, ***p<.001

<표 7> 중재효과변인 수준에 따른 중학교와 일반계고교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N=1,099

		집단	점수분포	β
중학교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상집단 (n=336)	3.6-5.0	.644***
		중집단 (n=459)	2.9-3.5	.475***
		하집단 (n=304)	1.0-2.8	.601***
일반계고교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상집단 (n=330)	3.0-5.0	.525***
		중집단 (n=435)	2.4-2.9	.543***
		하집단 (n=334)	1.0-2.3	.553***
	교사관계 만족도	상집단 (n=277)	3.2-5.0	.635***
		중집단 (n=490)	2.3-3.1	.497***
		하집단 (n=332)	1.0-2.2	.625***

주. 집단별 사례수가 다른 것은 점수분포상 동점이 있기 때문임.

***p<.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3%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중재효과에 대해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수준의 상·중·하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표 7> 참조), 3개 집단 모두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개방적 의사소통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다음으로 하집단과 중집단의 순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지만,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일반계고교생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37.9%로서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 중에서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 교사와의 관계 및 수업과 학습에 의한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약 7.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

<표 8> 성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N=1,099

	독립변인	B	SE B	β	R ² /ΔR ²
남	우울	1.070	.099	.604***	.347
	학교생활전반	-.131	.032	-.155***	.024
	역기능적 의사소통	.214	.053	.143***	.017
	교사관계	.127	.038	.117***	.009
	우울×교우관계	-.054	.025	-.118*	.004
R ² = .40*** F = 74.85***					
여	우울	.828	.064	.467***	.318
	역기능적 의사소통	.269	.060	.183***	.049
	학교생활전반	-.091	.033	-.100**	.014
	개방적 의사소통	-.133	.049	-.111**	.007
R ² = .39*** F = 88.20***					

주. 제시된 결과들은 각 집단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마지막 단계의 통계치임.

*p<.05, **p<.01, ***p<.001

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중재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교사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수준이 높아지면 자살생각을 많이 하지만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교사관계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변인들이 일반계고교생의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7%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중재효과에 대해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과 교사관계 만족도수준의 상·중·하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표 7> 참조),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한 관련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교사관계 만족도가 높은 상집단의 경우에 그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중집단에서 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관계 만족도는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특히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계고교생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설명력이 24.9%로 중학생과 일반계고교생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중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와 수업과 학습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약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전체 변인들이 전문계고교생의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2%였다. 전문계고교생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

성에 따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4.7%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중에서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와 교사관계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약 5.0%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우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의 경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들 전체 변인들이 남자청소년의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0%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중재효과에 대해 교우관계 만족도수준의 상·중·하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표 9> 참조), 모든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교우관계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그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다음으로 상집단과 중집단의 순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우관계의 불만족은 청소년들의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지만, 특히 교우관계의 불만족이 높을수록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31.8%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그 설명력이 다소 낮았다.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 중에는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가 이들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약 7.2%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변인들이 여자청소년의 자살생각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9%였다.

<표 9> 교우관계 만족도 수준에 따른 남자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집단	점수분포	β
상집단 (n=244)	3.6-5.0	.611***
중집단 (n=592)	2.9-3.5	.507***
하집단 (n=263)	1.0-2.8	.626***

주. 집단별 사례수가 다른 것은 점수분포상 동점이 있기 때문임.
***p<.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우울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급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차이가 없었으나, 개방적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계고교생이 중학생이나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생 간에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에서 차이가 없었던 노선(2003)의 연구결과나 전문계고교생이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던 박정미(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일반계고교생이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아버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던 국길숙(200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중학생이나 진로가 이미 결정되었을 수 있는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일반계고교생의 경우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당면과제에 대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길숙(2003)의 선행연구결과처럼 이들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방식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는 일부 하위영역을 제외하고 중학생과 일반계고교생들이 전문계고교생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고교생들이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던 정지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문계고교생이 다른 학교급의 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계고교생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던 김혜원 등(2010)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우울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의 청소년이 저연령의 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하다는 결과들(경인일보, 2010. 5. 6; 오현아 등, 2008)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학생에 비해 일반계고교생과 전문계고교생의 우울정도가 더 높았던 것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중학생과 전문계고교생이 일반계고교생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시도(박은옥, 2008)와 자살생각(임미례, 2010)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발달과정 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상황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박아청, 2000)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문계고교생이 일반계고교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기존 연구결과들(박병금, 2006, 2007; 서민정, 2005)과 일치하는 바이다. 이는 박병금(2007)이 제기하듯이 전문계고교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대해 느끼는 갈등과 사회진출의 기회나 선택 가능성이 일반계고교생들에 비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학생(안현진, 2009)이나 고등학생(박병금, 2006, 2007; 서민정, 2005)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중·고등학생을 비교한 경우에도 전문계고교생을 배제하거나(권은희, 2009; 임미례, 2010) 일반계와 전문계고교생을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윤경란, 2006)가 많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학생과 전문계고교생의 자살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일반계고교생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중학생이나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인지적 미성숙이나 진로에 대한 좌절감이 자살생각과 갖는 구체적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성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결과들(김수진, 2001; 노선, 2003; 노정화, 2002; 박정미, 2004)과는 불일치하지만,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오현아 등(2008)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방식에서만 차이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남녀학생 간에 개방적이든, 역기능적이든 의사소통방식에서만 차이가 없는 것이 그 내용이나 빈도 혹은 양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성차는 기존 연구들에서 매우 비일관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고(정지숙, 2007) 교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우채영 등, 2010 재인용), 일부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심희옥·김영미, 2000)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최지은·신용주, 2003 재인용)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성차가 없었다(지은림·김성숙, 2004).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남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연구들에서 학교만족도의 어떤 측면을 탐색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울은 성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하다는 보고들(경인일보, 2010. 5. 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세계일보, 2009. 11. 2; 엄태완 등, 2008; 우채영 등, 2010; Scheidt et al., 2000)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살생각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문경숙, 2006; 박병금, 2006; 박은옥, 2008; 박재산·문재우, 2010; 통계청, 2008; 하현희, 2001)과 맥을 같이 했다.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과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지표(김현순, 2009; 육성필, 2003; 허정은, 2004; Beck et al., 1993; Pfeffer et al., 1991)임을 감안할 때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중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살시도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2~3배 정도 많지만 자살완성률은 남자청소년이 더 높음(우채영 등, 2010)을 감안할 때, 실제의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는 남녀청소년 모두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교급과 성에 따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과 자살생각을 더 적게 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낮고, 우울이 증가하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오현아 등, 2008; 전영주, 2001; 최인재, 2010 재인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폐쇄적인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과 자살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오현아 등, 2008; 전영주, 2001; 최인재, 2010 재인용)과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과 갖는 관련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고, 남자청소년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과의 관계가 두드러졌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 얼마나 개방적으로 대화하느냐가 자살생각을 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남자청소년은 부모와 얼마나 역기능적으로 대화하느냐가 자살생각 뿐 아니라 우울을 느끼는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녀와 갖는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모든 학교급과 남녀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클수록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살생각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변인이 청소년의 자살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주(2008)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특히 이러한 관련성은 중학생이나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일반계고교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계고교생들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학업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건강과 갖는 관련성도 더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는 선행연구들(박병금, 2006; 박혜정, 2009; 서민정, 2005; 우채영 등, 2010; 이은숙, 2002; 이재상, 2004; 전영주, 2001; 홍영수, 2004; Alloway, 2005; Angela, 2007; Baumeister, 1991; Groholt, 2000; Lewinsohn et al., 2001; Weissman et al., 1999)에서 일관되게 보고하듯이 모든 학교급과 남녀청소년 모두 우울을 많이 느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설명력과 이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주요인이었다. 특히 일반계고교생과 전문계고교생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에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설명력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 시기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및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남녀학생 모두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설명력을 지녔다. 다음으로 이처럼 우울이 자살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일반계고교생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교사관계 만족도가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중재효과가 있었으나 전문계고교생의 경우에는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 이들 변인들의 중재효과가 없었다. 특히 중학생은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일반계고교생은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교사와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가질 때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높이는 반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낮추며, 또한 교사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성별로 남학생의 경우에만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에 교우관계의 만족도가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우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산출됨으로써,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영숙(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부모와 갖는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가 만족할 만한가 아닌가에 따라,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우울이 심화되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기의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모들 대상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대로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하는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와 보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우울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지니는 이러한 중재효과는 청소년들의 성과 학교급 및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우울과 자살문제를 동일한 유형과 수준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과 예방책 제시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방식과 보다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실제적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자살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변인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자살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충청지역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및 군단위의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시간과 내용 등의 보다 질적인 측면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생활, 성적 등의 여러 가지 관련요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경인일보(2010. 5. 6). 우울증을 달고 사는 청소년.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916>에서 2010년 11월 3일 인출.
- 구현영·박현숙·장은희(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희(2009).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2009). 초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중학생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3)**, 5-27.
- 김수진(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8)**, 66-93.
- 김재엽·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현순(2008).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구조적 관계: 노인과 청소년 차이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김현실(2002). 청소년의 성격 특성,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자살 시도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2(2)**, 231-242.
- 김현주(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아동복지학**, **27(1)**, 69-93.
- 김혜원·조성연·김민(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49-60.
- 김희연(2006). 심리도식, 가족 융성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화(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문은식(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종용·이재규·조은경(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병금(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금(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18.
- 박병금·노필순(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8)**, 168-193.
- 박아청(2000). **사춘기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숙(2009).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 221-251.
- 박은옥(2008).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3)**, 465-473.
- 박정미(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의사소통 유형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산·문재우(2010).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사회학회**, **27(1)**, 105-131.
- 박재연(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 박현숙·정선영(2010).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9(3)**, 278-287.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민정(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세계일보(2009. 11. 2). [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들] '우울증 늪'에 쉽게 빠져... 청소년 정신 건강 적신호.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101002193&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에서 2010년 5월 3일 인출.
- 송성자(1996).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욕구와 단기가족치료의 접근. **연세사회복지연구**, **3(1)**, 77-102.
- 수원시민신문(2010. 10. 10). "청소년 자살 급증...청소년의

- 생명을 보듬어야".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10068에서 2010년 10월 12일 인출.
- 심희옥·김영미(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의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안현진(2009). **중학생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성향적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인문논총**, **22(1)**, 5-30.
- 오현아·박영례·최미혜(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우선유(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박아청·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 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19-38.
- 육성필(2003). **자살관련 변인의 탐색과 치료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란(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권오(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창·오미경·최종태(1992).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우울증. **가정의학 회지**, **13(12)**, 927-934.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상(2004). **우울증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례(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 절망감,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신국(2002). **대안학교 고교생과 일반계고교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규·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67.
- 정지숙(2007).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김혜원·김민(2010).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2010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77-178.
- 조성진·전홍진·김무진 등(2001). 한국 일 도시(부천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지은림·김성숙(200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20(2)**, 83-101.
- 최인재(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최준영(2008).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 동 간의 관계. **사회연구**, **16(2)**, 211-232.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통계청(2008). **2008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0). **2010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 하상훈(2000).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현희(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석·정영조(1992).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치료적 개입**. **인제의학**, **13(2)**, 151-157.
- 허정은(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서울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Angela, B. B. (2007). **An ecological risk factor examination of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in African American teenag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isconsin-Madison University.
- Alloway, J. (2005). **Adolescent constructions of the meaning of suici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Y. University.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39(4)**, 459-475.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 Development*, 56(3), 438-447.
- Baumeister, R. F. (1991).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1) 139-145.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 372-394.
- Byard, R. W., Markopoulos, D., Eitzen, D., James, R. A., Blackbourne, B., & Krous, H. F. (2000). Early adolescent suicide: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Clinical Forensic Medicine*, 7(1), 6-9.
- Corsnoe, R. & Elder, G. H.(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5), 571-602.
- Grob, M., Klwin, A., & Eisen, S.(1983). The role of the high school professional in identifying and managing adolescent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Groholt, B. (2000). Young suicide attempters: A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n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7), 868-875.
- Hallfors, D. D., Waller, M. W., Ford, C. A., Halpern, C. T., Brodish, P. H., & Iritani, B.(2004).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risk: Association with sex and dru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7(3), 224-230.
-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4), 427-434.
- Marcenko, M. O., Fishman, G., & Friedman, J.(1999). Reexamin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pplied to a diverse pop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1), 121-138.
- Pfeffer, C. D., Klerman, G. L., Hurt, S. W., Lesser, M., Peskin, J. R., & Siefker, C. A. (1991). Suicidal children grow up: Demographic and clinic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4), 609-616.
- Range, L. M.(1993). Suicide prevention: Guidelines for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5(2), 135-154.
- Scheidt, P., Overpeck, M. D., Wyatt, W., & Aszmann, A. (2000). Adolescents'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In health and health behavior among young people. *WHO Policy Series: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ssues 1*. Wsettinger, Copenhagen.
- Weissman, M. M., Wolk, S., & Goldstein, R. B.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American Medicine Association*, 281(6), 1707-1713.

□ 접수일 : 201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12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12일